

마을버스 안에서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이른 아침, 모처럼 잣나무골 아래 마을회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일행은 넷,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과 나, 외국인 노동자 둘이었다. 이들은 마을에 세들어 산다. 아는 이들이다.

요즘 외국인노동자가 확연히 눈에 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들이 돌아온건가. 사실 그들의 손길이 있고서야 여기, 수도권 변방이 돌아간다. 도시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더 부족하다. 언제부턴가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그 자리에는 외국노동자들이 채워졌다. 그래서 인근 여러 마을의 중심인 안거리는 저녁이면 다시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곳을 북적이게 하는 이들은 외국노동자들이다.

암튼 좌석 열다섯개뿐인 작은 소형버스인데도 자리가 여럿 남았다. 다음 마을입구 정류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여럿이 오르고 뒷자리 두어개를 빼고는 다 채워졌다. 다시 안거리 정거장에서 노인 한무리가 차

에 오른다. 그러자 젊은 외국노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어명은 뒷자리로 물러서고, 두어명은 선 채로 간다. 노인들은 주저하다가도 고맙다고 답례하고는 자리에 앉는다.

우리 풍습처럼 어르신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 기특하달까, 내심 ‘다들 잘 배웠네’ 싶다. 함께 뒷자리에 앉은 우리 마을 한 외국청년은 27살, 네팔사람으로 5년 전부터 줄곧 여기서 공장생활을 한다. 다시 돌아온게 아니라 아예 떠나지 못했었다. 그런 그가 안스럽다. “고생 많네. 부모님 보고 싶지? 장가는 언제 가나?” 아는 사람이지만 오지랖스럽게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쏟아낸다. 곧 고향의 여자친구를 불러 같이 살 계획이라란다.

한 청년은 베트남사람, 34살이다. 그는 아내와 여섯살된 딸 하나가 있다. 코로나19 직전 들어와 여지껏 있다. 그는 곤지암 인근 가구공장에 다니고 아내는 옆 마을 식품공장에 다닌다. 어린 딸은 안거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다. 그는 한국에 정착해 아이의 공부도 여기서 마치고 싶어한다. 광주시내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곤지암읍내 베트남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어느새 작은 차에 사람이 넘쳤다. 절반 이상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즈베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동남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네팔 청년에게 아는 사람도 있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젓는다. 외국노동자들끼리 서로 아는 걸로 아는 게 좀 생경스럽다.

헌데 정작 물어 볼 말은 꽤 뒤늦었다. “어디가?” “경기대요?” “왜?” “한국어능력평가시험 보려요.” “몇급?” “5급요.”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하고는 또 물었다. “일하는데 시험까지 필요한가?”

네팔청년은 5년후 한국 거주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이라란다. 어학연수인 셈인 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치뤄낼 거라고 했다. 그는 한국말이 어렵단다. 뭐라고 답해야할 지 모르겠다. 거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그와 작별했다. 아쉬웠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꿈이 잘 이뤄져가기를, 이나라에서 나쁜 기억을 가져가지 않기를 바랐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RE100은 나랏일이다



기자수첩
김재웅
(산업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전세계 정부가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시작하면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RE100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1차 목표도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에서 10% 안팎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성 문제도 있지만, 전력 공급이 한국전력 주도로 이뤄지는 데다가 정부도 뚜렷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돈이 있어도 친환경 에너지를 살 수도 없다.

직접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발전 설비를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필요한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까지도 지난해 친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고백했을 정도다.

앞친데 댈친 격으로 전기 요금은 올라버렸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비용도 더 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래도 계획대로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는 작은 씁쓸함마저도 느껴졌다.

최근 독일에서 만난 현지 관계자는 어떻게 100% 친환경 에너지를 수급하느냐는 질문에 조금 비싼 친환경 요금제를 쓰면 된다고 답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

다. 국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에 불과한 문제라는 것.

그 밖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플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공장까지도 상당수는 이미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100%로 끌어올렸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거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국내에 생산 기지를 더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수급할 수가 없어서 공장이 있어도 수출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전사적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노력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도를 가야한다.

/juk@

오늘의 운세5월 17일 (음 3월 28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48년생 사업의 장구한 이익을 위해 신용을. 60년생 남의 단점을 바라보듯이 나의 단점도 찾자. 72년생 아시는 다음 날로. 84년생 귀인을 만나고 보니 옛날 지인.

 소

37년생 내 처지가 초라하여 한탄하다. 49년생 늘 전화위복이 있는 것도 인생. 61년생 상대방의 나쁜 계락을 미리 알고 대처. 73년생 허상을 통해서라도 이성에게 과시하고 싶다. 85년생 마음이 한결같으면 어떤 일도 해낸다.

 호랑이

38년생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다. 50년생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마구 행동하면 본인 발등만. 62년생 처음부터 가질게 없고 기대할 게 없다. 74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86년생 언제나 일인당백(一人當百)을 한다.

 토끼

39년생 고학력임에도 생활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불성실의 결과. 51년생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63년생 돈 문제로 이혼 위기. 75년생 결심이 사를 못 간다. 87년생 봄날 달밤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네.

 용

40년생 행운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52년생 입과 입속을 청결히만 해도 좋은 기를 받는다. 64년생 야간 음주는 종일 하루를 힘들게 한다. 76년생 낮에는 일하고 밤 사이에 공부한다. 88년생 뛰어난 작품이 드디어 태어난다.

 뱀

41년생 살의 기운이니 먼 길에서 운전조심. 53년생 자두연기(煮豆燃萁)라 서글프다. 65년생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온기를 좋게 만들어보라. 77년생 연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89년생 은역을 입으면 보답을 해야 내 도리.

 말

42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절박하다. 54년생 내가 한 일은 내가 받는다. 66년생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외출은 삼가. 78년생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으나 손재로 이어질 수 있다. 90년생 꽃에는 향기가 있고 달빛은 아름답게 비추네.

 고양이

43년생 현재 상황에 따라 움직이자. 55년생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니 말조심. 67년생 얼굴빛이 어두우니 음식도 조심해서 먹도록. 79년생 개미구멍이 점점 커져 마침내 큰 독이 무너진다. 91년생 웃는 것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데.

 원숭이

44년생 초저녁 음주는 조심. 56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먼저 사도록. 68년생 정신을 한곳에 모아보자. 80년생 직원 중에 도둑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듯 한다. 92년생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듯 답답하지만 헤쳐 나간다.

 닭

45년생 순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약속하지 말자. 57년생 엷디엷은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전전긍긍. 69년생 수성(水性)이라 예능적 기운이 탁월. 81년생 화장이 짙어 지는 일진. 93년생 한 가지 일을 보고 내일 할일이 짐작이 간다.

 개

46년생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유지. 58년생 집안문제는 오전에 슬프고 이른 오후에 기쁨이 있다. 70년생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 82년생 내 능력은 새 발의 피로 적지만 발전적. 94년생 3가지 소식을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

 돼지

47년생 오늘 귀인은 전생에 이미 맺은 인연. 59년생 앞의 실수를 슬퍼하지 말고 재조명하는 거울로 삼자. 71년생 스승은 인품이나 글이 아름다우니 존경. 83년생 정서 교육도 중요시. 95년생 한바탕의 꿈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니 공부하자.



김상회의四季곡우

올 해 곡우 날에는 적은 양이나마 촉촉이 비가 내렸다. 농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곡우 무렵 대부분 천수답이었던 우리나라의 농토들은 봄비가 충분히 와주어야 못자리 마련이 수월해진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는 말까지 있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는 농사일이지만 곡우가 되면 벼농사에 중요한 법씨를 담가두어야 한다.

이때 초상집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보거나 당한 사람은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게 하여 부정한 기운을 거둬 낸 다음에 집 안에 들어와 집 안에 들어와서도 법씨를 보지 않게 한다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부정한 사람이 법씨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싹이 잘 트지 않아 그 해 농사를 망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심지어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는 법씨를 담그면 향아리에 금줄을 쳐놓고 고사를 올리기도 하며 익산에서는 곡우 때 법씨를 담고 솔가지로 덮어놓아 부정을 쫓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역시 초상집이라든가 굿은 일이 생긴 집에 다녀오면 문 밖에 불을 놓고 들어 오게 했는데 이는 불이 부정한 기운을 쫓는데 으뜸이라 보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절기의 풍습을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풍속이나 풍습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 집단의식 또는 무의식의 발현이다. 절기는 정확한 자연과학이다. 북반구의 전통국가에서는 농사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주산업이었든지라 어느 때에 씨를 뿌리고 어느 때에 물을 대고 갈아야 최상의 수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험치가 모여서 풍속이 되고 풍습이 된 것이다. 때가 지난 뒤 씨를 뿌리면 아예 발아도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때맞춰 비가 내려주거나 손보지 않으면 말 그대로 흉작이니 농사와 절기는 과학이라 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9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 손호성



**사투리이스도쿠**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9		
	1			2	
		7			
	7	4		2	3
8			5		2
	5	8		6	4
			8		
	4			7	
		9	1		

2		6	3	5	
	2		8	6	
	1				9
3		4		2	8
3			2	7	1

정답

8	7	9	1	2	6	8	3	5
2	8	3	5	9	7	1	6	4
6	9	1	7	8	3	5	2	4
1	2	6	7	9	4	8	5	3
1	2	9	3	5	6	8	7	4
8	9	5	2	6	7	1	9	3
9	8	6	9	1	2	7	4	8
9	1	2	8	7	9	1	6	5
7	1	8	6	5	2	9	3	4

8	2	1	8	7	9	6	9	1
9	1	8	5	9	6	2	1	7
6	9	7	1	2	8	9	5	4
9	8	1	2	6	7	9	5	3
7	6	2	1	9	5	9	1	8
1	9	5	9	1	8	7	2	6
1	7	6	9	5	9	1	8	2
8	5	9	7	2	1	6	9	3
2	1	9	6	8	1	5	7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